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6

2001

가정예배 · 시편 ·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시편 ·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켜 주소서.

6월의 기대



6월은 짙은 녹음(綠陰)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6월에는 푸르름보다 아픔이 먼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고,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던 때가 있었을까요?
지금, 참된 평화의 왕을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나 참된 안식과 평화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6月!

죄에 물들었던 영혼들이 정화(靜化)되고
깊은 잠에 빠졌던 영혼들이 소생(蘇生)하는
성령의 푸르른 계절!

더 이상 싸우거나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참된 평화의 왕국(王國)!

그리고

그 나라와 그토록 그리운 계절을 이 땅에 도래(到來)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제,

진정한 평강의 왕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영혼들의 가슴마다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1년 6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시편 서론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은 본래 유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이나 기도의 지침서였습니다. 때문에 시편들은 유대 민족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찬양의 매개였던 경배 및 예배용 찬송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의 유형은 ①슬픔의 시(3-7, 9-10, 22, 32, 42-44, 51, 60, 94, 102, 137편), ②감사의 시(18, 30, 32, 34, 56, 75, 107, 118, 138편), ③찬송의 시(19, 47, 92, 96, 103, 105, 111, 113-114, 117, 146-150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범주는 모두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율법서와는 달리 인간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 고백과 아울러 시편은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이 그를 섬겨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늘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사야서와 더불어 시편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에게 가장 자주 인용된 책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 생애의 여러 다양한 면모들(시 22:1; 막 15:34)과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의(시 110:1; 행 2:31-36)를 설명하기 위해 시편을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 8, 22, 40, 45, 110편과 관련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예언적이거나 메시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생과

사역의 전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구자들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이 찬양들, 탄원 시들, 교훈 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이 시들을 그들의 삶과 예배의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충현의 성도들 역시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의 우주적인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요내용

- | | |
|-----------------------|------------|
| 1. 사람과 창조에 관한 시편 | (1~41편) |
| 2. 이스라엘과 구속에 관한 시편 | (42~72편) |
| 3. 예배와 성전에 관한 시편 | (73~89편) |
| 4. 우리의 지상 체류에 관한 시편 | (90~106편) |
| 5.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 | (107~150편) |

• 각 부문은 각기 찬양 송영으로 끝나며(41, 72, 89, 106편), 마지막 부문에는 송영이 여섯 장이 있습니다(145~150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편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종교적 행위들을 반복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빼앗겼던 법궤가 기랴여아림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치세기간 중에도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법궤는 방치되었습니다(6절). 그 기간이 20 년이었습니다(삼상7:2 참고). 그로부터도 7년이 지나서야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합니다(삼하6장 참고). 오직 다윗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3-6절).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추며 기뻐합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신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10-18절, 삼하7장 참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편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계2:4-5절 참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로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며 격려해 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1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그 옷깃에 떨어지고이는 향기로운 성유(聖油)와도 같은 것입니다(2절).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혈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3절)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신앙인들의 공동체에 축복을 명하십니다. 곧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복입니다(3절).

개인주의적이고 고립된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모습 안에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 한 가족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 안에서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떠나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1-2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서 늘 급하고 분주한 일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는 본분에 충실하기 어렵게 하는 많은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면서 했던 말이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행6:3-4 참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본분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일을 위해 배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또한 그러한 요구를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3절).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본분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을 즐겨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세상뿐 아니라 지나온 역사도 찬송의 주제가 됩니다. 바라보고 감탄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와 선하심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136편과 함께 “대 할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3절).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분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특별한 자기 소유로 선택하셨습니다(4절). 그 분은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6-7절).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이십니다(8-12절). 그 분에게 비교될 만한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5절). 세상이 섬기는 신들은 무용지물이요, 헛것일 뿐이며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15-18절).

우리의 삶은 찬송할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영원히 찬송 받으실 그 이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가만히 앉아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또 때로 삶의 위안을 삼을 만한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동일한 고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가능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시는 전통적으로 유월절에 부르는 화답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각 절의 전반부를 낭송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답송을 하는 것입니다. 스물 여섯 절을 똑같은 문구로 답송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는 한 구절 한 구절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때부터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어떠한 것도 우연에 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을 따라왔고 지금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고 내 삶이 가능하도록 하신 손길로 체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삶 속에 그대로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의 저작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구절절이 흐르는 단어들을 보면 비통하고 처절한 감정의 생생한 묘사와 마지막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대한 저주로 보아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생활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본 시는 일종의 저주시에 속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향한 저주는 개인의 사적인 복수심보다는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써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날에 모든 불의를 멸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시의 첫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로, 자신들을 정복한 자들에 의해 서 당하게 되는 멸시와 조롱 때문에 포로가 된 자의 슬픔을 비유적으로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7절에서 9절까지로 자신들을 포로로 삼은 바벨론이 자신들의 불의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마치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하고 있으며, 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 상황은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의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다윗이 지은 것으로 그가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여 그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왕위와 나라가 더욱 견고케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자하심이 계속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첫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인자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시인 자신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4절과 5절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모든 열왕들도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예언은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을 비롯하여 많은 열왕들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찬양함으로써 성취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완벽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6절에서 8절까지인데, 과거에 시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입각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 자꾸 의심이 생기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 확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다윗이 지은 것인데,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체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요소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시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언급되는데, 이것은 그의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의 경험에 의해 얻어진 지식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시의 첫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날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높으신 지식에 대해 체험적인 신앙고백의 형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하나님의 전지성). 둘째 부분은 7절에서 12절까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것들도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하나님의 편재성). 셋째 부분은 13절에서 18절까지로, 시인은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완전한 주권적 능력을 겸손히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하나님의 전능성). 마지막 부분은 19절에서 24절까지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악을 철저히 배격하며, 하나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악인의 멸망을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10여 년에 걸친 유랑생활을 했던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 시의 첫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로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며 자신을 멸망시키려하는 악인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2절), '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3절),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4절),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5절)의 표현들은 시인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둘째 부분은 6절에서 8절까지로, 과거에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며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9절에서 11절까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분은 12절과 13절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공회히 여기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확신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한 자들이 멸망 당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옷자락만 찢고 살려준 것을 배경으로 하여 이를 회상하며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열렬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에 대한 원망이 없이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첫째 부분은 1절과 2절로,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울리어져 그분을 기쁘게 하는 분향과 제사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합니다. 둘째 부분은 3절에서 7절까지로, 시인 자신이 처한 시련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더욱 성결케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악에 물들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8절에서 10절까지로,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악인들의 울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자에 의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원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느낄 때 가장 먼저 취하게 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본시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왕을 피해 도피하던 때(삼상 19:11-17)의 다윗의 절박함과 외로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모두가 자신을 떠나고 홀로 지친 영혼을 감싸안고 있는 절망적인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현재의 상황 이후에는 여호와와의 구원을 통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소망이 있습니다(5-7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은 이전에 도우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분명한 소망은 하나님을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좇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를 도우소서.

기도 제목 / 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케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려고 다투거나 강하게 대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본시는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심령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는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자신의 심령과 참담함을 토로하고, 5-8절에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2절에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억울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참담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탄식에만 빠져 있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찾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지난날 우리를 도우셨던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본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 주의 백성에게 임했던 여호와와 구원과 보호에 대한 지난날의 회상과 그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1-4절), 현재의 구원에 대한 호소(5-11절), 그리고 장차 주의 백성들이 얻게 될 축복에 대한 노래(12-15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절).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3절). 놀랍지 않습니까?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그를 기초로 하여 현재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미래의 축복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루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혹시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본 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 시 전체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20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와 무한하고 위대하신 능력과 행사(3-6절),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여호와와 영광(7-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과 보호의 의로운 역사(17-20절)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야말로 하나님 찬양의 진정한 이유들입니다. 끝으로 21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와 광대하심과 영예로우심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다짐하며 본 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시에 나타난 주를 찬양해야 할 이유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해야 할 필연적 이유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기도 제목 / ① 찬양의 삶이 계속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본 시의 저자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2절)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주어진 생명의 모든 순간을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평생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관계를 맺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요(6절) 모든 이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요(8,9절)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7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히 대대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0절).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과 형편에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전에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 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과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시편은 몇 편이 안 됩니다. 이 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고 멋이 있는 피조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자와 압박 받는 자를 돌보시며(1-3절), 이러한 능력은 별들 가운데에도 나타납니다(4절). 그 분의 돌보심은 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때를 따라 들짐승과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8,9절). 그러나 그 분의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11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견고한 문의 빗장처럼 문을 잠그시면 그 성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며 배부를 수 있습니다(13,14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15절).

자연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견고한 빗장의 안전한 성처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1-3절),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 분은 그 성에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0 | 시의 찬송은 참으로 넓어서 가슴이 벅찰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 우주가 함께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언약의 구속과 계시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1,2절).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3,4절).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도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찬송하는 방법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꽃은 아름다운 잎을 피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은 하늘을 멋있게 날아다님으로 찬양합니다. 이렇듯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존재하며 충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 뿐 아니라 깊음과 그곳에 사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8,9,10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목적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11,12절).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보다 더한 찬양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내가 사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에 다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음악과 춤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은혜를 아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4절).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5절).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무시무시한 말로 표현하며 찬양하는 후반부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6-9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악들은 이미 패배 하였으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령의 찬양입니다. 내 심령에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때마다 그 심령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심령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시편 150편은 시편을 마감하는 훌륭한 마침표와 같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정리해 봅시다. 시편은 각양 각색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들은 내적, 외적의 적들과 만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때로 시편기자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잠잠하시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 너머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 분의 고난 위에 따르는 구원을 예표해 줍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각기 처한 상황 속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세상의 죄를 밝히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 분께 피하기만 한다면 죄 용서는 물론 안전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그분의 구원은 영원히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아프리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신약의 첫 장, 첫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 세계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는 세계입니다. 이 구절만 읽고 있어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분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분의 세계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4대씩 3개로 묶은 예수의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계시되어온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미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밝힌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구원과 심판을 주실 분입니다. 새 창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고 예수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부활절의 능력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 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55:11 절에 기록된 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살펴보면, 성령에 감동된 마태는 예수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할 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에 대하여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마5:2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곧 본문 5절 이하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거하심도 호11:1을 인용하여 기록하기를 본문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본문 17, 18절은 헤롯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사내아이를 죽임에 대하여, 또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나사렛에 거하심도 기록된 말씀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헌신된 삶을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권요셉 최은아 단기선교사(아프리카)가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함에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손길 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그의 사역은 말4:6절에 의 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1~12절은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침경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요3:30절에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도 처음은 거절하였지만 주님께서 “이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 (15)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보통 사람들은 시험이라면 먼저 고개부터 가로 젓기 쉽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을 생각하면 정신차려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험받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충만한 40일 금식기도 후에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고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일에 넘어집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언제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내용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의 시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엡 6:10~17).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대 그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광야 시험의 자리에 자신을 세워놓고 묵상해 봅시다. 오늘 나의 연약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부인의 삶을 감당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추진회, 이소영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13,14). 그런데 천만이 넘는 성도를 자랑하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히는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상실한 맛과 빛들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맛과 나타낼 빛에 대하여 팔복이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 보면 전혀 복이라 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팔복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억할 것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살인 · 간음 · 맹세 · 원수갚음 · 원수를 미워함 등, 생활 전반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 못하리라".

상실된 세대 속에 빛과 소금되는 삶을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진리가 상실된 세대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들(아프리카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잘 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쉬 빼앗기는 것을 아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1절). 구제하는 것 · 기도하는 것 · 금식하는 것 등, 경건 생활의 일반적인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기 자랑' 이 되기 쉽다고 지적하십니다.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3절), 골방에서 할 것이며(6절),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16절),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 되고 자기 의가 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보물을 그곳에 쌓게 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21절).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겸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 마실까 ·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판까지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 제목 / ① 참 경건의 삶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자주 '믿음이 이기네' 라고 찬송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믿음은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1-6절). 믿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는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함을 속이지 않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7-12절). 기도는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함으로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13-14절). 결코 대중들이 선택하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15-23절). 결코 거짓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런 저런 사역을 했다는 보고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말씀 위에 건축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하나 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외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믿음이 좋다는 말로 속이지 말게 하소서. ② 복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수훈(5-7장)을 마치신 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문둥병자(한센병)를 고쳐주셨습니다(1-4절). 로마의 군대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5-13절).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 주셨습니다(14-17절).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에 바다도 순종합니다(23-27절). 귀신이 들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28-34절). 어떤 자에게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감격을 주시지만, 어떤 자에게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삶의 우선 순위를 그에게 두시겠습니까?(18-22절) 예수님은 내가 믿음의 주인으로 선택해도 조금도 손상이 될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당신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것이 불행입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 분께 둔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主)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에 따라 사물은 달리 보이며,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들의 행동은 과감했는데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1-8절).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9-13절). 그에게는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었고(18-19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의 옷을 만지고 나음을 받았습니다(20-26절). 뿐만 아니라 두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침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27-31절). 귀신은 병어리가 되게 하여 한 사람이 인생을 망쳐놓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빌미삼아 예수님을 모함합니다(32-35절).

예수님의 사역은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착한 사역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당신의 눈은 어떻습니까?

성한 눈이 행복을 창조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하루를 성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② 총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의 길을 동의하여 그를 추종하는 자입니다. 도제(徒弟)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승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걷고 있는 삶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떤 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자기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가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1-4절).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었던 영혼을 건지는 사역을 위해 훈련시키십니다(5-15절). 그들은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주어야 하며, 주께 받은 권세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는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16-23절). 그러므로 제자의 삶을 만사형통이라는 등식으로 만들어두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자가 아닙니다(34-39절). 제자의 길이 험하지만 거기에는 상급이 따르는 길입니다(40-42절).

제자로의 부름 · 훈련 · 십자가를 짊어짐 · 상급.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부름은 받았지만 훈련을 받지 않고,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부름에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당시에 던져지던 질문임과 동시에 지금도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일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어떤 이는 죄인의 친구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이는 미련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하니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소경과 앓은뱅이, 그리고 문둥이와 귀머거리의 회복, 죽은 자의 부활과 복음 전파가 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1-6절)

그 후에 예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셨고(7-14절), 반대로 완악한 세대를 향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16-19절). 그리고 자신이 행한 모든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고라신과 벳새다, 즉 악한 세대를 대표하는 두 지방을 향해서 심판의 불을 토하고 계십니다(20-24절).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계시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셨습니다(25-27절). 그리고 참된 안식을 가르치심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공급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28-30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주이시다.

기도 제목 / ① 심판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안식을 찾아가게 하소서. ② 이 땅의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구역공과 공부에 대해서 (꼭 읽어 보세요!)

- ① 2001년도 2월부터 구역성경공부시간에는 매 주일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역공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 본문의 배경을 설명한다.

머물면서 - 본문에서 전달하려는 목적을 문제풀이 형식으로 공부한다.

나오면서 - 본문에 대한 결론 및 적용을 생각해 본다.

- ② 먼저 각 교구의 목사님들께서 한 달 동안 공부할 내용을 미리 다루 시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님들께서 구역공과를 준비하시다가 의문이 생기 시면 담당 교구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고,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도 하시길 바랍니다.

- ③ 각 교구의 구역장님들께서는 '주간충현'에 실리는 다음 주일 설 교의 내용을 읽으시면 구역 성경 공부를 더욱 효과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충현'에 실리는 설교가 그 주간에 실시되는 금요구역예배의 공과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일 미리 제시되는 설교를 읽으시고, 구역공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④ 각 구역에 속한 성도들께서도 '주간충현'의 설교를 읽으시고 구역공과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의 답이 '설교'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교 내용을 잘 소화하시면 구역공과는 저절로 이해 됩니다.

⑤ 구역성경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풀거나, 그 동안 배우거나 들었던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연구하십시오. 그래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성경은 수학문제처럼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요구하는 핵심에 충실하셔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⑥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것은 구역성경공부가 모임자체로 목적을 두는데서 벗어나서 더욱더 단단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견해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구의 지도자와 구역장, 그리고 구역원 모두가 말씀 연구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실제로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충현의 모든 구역에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구역성경공부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충만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 1 과

오순절

찬송 / 179장(빈들에 마른 풀 같이)

본문 / 행 2:14-21

들어가면서(서론)

오순절(五旬節)은 '오십일'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이 해마다 지키는 절기로써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뒤 50일 후에 맞게 되는 4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밀을 거두어들였던 것을 기념했던 절기이기도 합니다(출23:16). 이렇듯 오순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오순절에 기독교, 즉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살펴보고,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4절-15절

② 16절-21절

2. 행 2:1-4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은 왜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3.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창세기 1:1-2에는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4. 오늘의 본문인 행 2:14-21에서 베드로는 청중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13절), 자신들이 증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상의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
5.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이 구약과 연관된 것임을 17절-21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요엘의 예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구약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구약성경인 요엘서의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란 어떠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까?

6. 오순절 사건은 새 생명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임재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었을까요?

나가면서(결론)

1. 오순절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였고, 그들은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령께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벌어진 복음의 확산은 사도행전 1:8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일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계십니까?

-
2.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경험이며,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일깨우고 성취시키며, 복음이 이방인의 언어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끝날까지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이 세운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세워진 제도요 기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맞이하게 되는 오순절 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제목 :

본문 :

제 2 과

약속의 자녀

찬송 / 405장(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본문 / 갈 4:28-31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롭다 여김을 받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28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이후로는 '권속')을 설명하기 위하여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여금 하녀에게서 태어난 자녀와 같지 않고, 자유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녀와 같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삭과 같이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얻게 된다는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어떤 유대-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 외에도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우월한 구원'(merit-

salvation)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엄중하게 이러한 이단을 배격했습니다. 그는 칭의(의롭다함을 받음)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며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성화(아들의 형상을 닮아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인용함으로써 설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구요. 그러므로 정성껏 준비하시고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28절 -

②29절 -

③30절 -

④31절 -

2.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닐까요?(29절 상반절)

-
3. 초자연적인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어떤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29절 하반절)
4.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 즉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꺾박하는 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29절)
5.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창17:18-19 참조)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까?(30절, 창21:12절 참조)
6.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롬8:17 참조)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고후6:8-10 참조)
7.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일까요?(갈3:29)

나가면서(결론)

1.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들에게는 각자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들에게는 각각 한 가지씩, 두 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며, '세상과 하늘', 또는 '율법과 은혜'라는 차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고, 신약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율법은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며,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천국을 기업을 상속받은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제 3 과

놀라운 도전

찬송 / 389장(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본문 / 수 1:1-6

들어가면서(서론)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1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애굽의 종살이와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쓰임 받은 위대한 영웅이요 지도자였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과 같이 느껴지게 할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7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라". 누가 더 낫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은혜와 진리가 더 낫습니다! 예수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곧 예수는 율법을 대신하고, 여수아는 모세를 대신한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새로운 도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1절 -

②2절 -

③3절~4절 -

④5절~6절 -

2.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로부터 어떠한 명령을 받았습니까?(2절, 신31:7-8)

3.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까?(3절~4절, 5절)

4.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 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민 14:6) 그리고 그러한 반응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볼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5. 여호수아가 무너뜨려야 할 장애물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리고와 같은 강력한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요일2:15-17)

6.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물리쳐야 할 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갈5:19-21)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까?(엡6:12)

7.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6절)

나가면서(결론)

1.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앞에 계십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길과 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2.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는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목:

본문:

제 4 과

의로운 해

찬송 / 358장(아침해가 돌을 때)

본문 / 말 4:1-3

※광고 : 6월 29일 구역공과는 7월 호에 게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서론)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된 이후 몇 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또 다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포로생활을 자초했던 때와 동일하게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여겼으며,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하는 등,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여년 동안의 침묵시대가 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책,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여섯 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①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1:1-1:5) ②제사장에 대한 책망(1:6-2:9) ③백성들에 대한 책망(2:10-3:15) ④의인은 기억될 것(3:16-1:18) ⑤악인과 의인의

결국(4:1-4:3) ⑥메시아의 도래(4:4-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상과 같은 말라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옆두에 두고 말라기 4:2에 나타난 '의로운 해'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1절 -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맞게 되는 결과

②2절 -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맞게 되는 결과

③3절 -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2. 2절의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비추어 질까요?

3. 2절의 '의로운 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계22:20 참조)

(복음) 14월 14일

4. 2절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요일1:9 참조)

5. 죄를 용서받으면 마음속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사61: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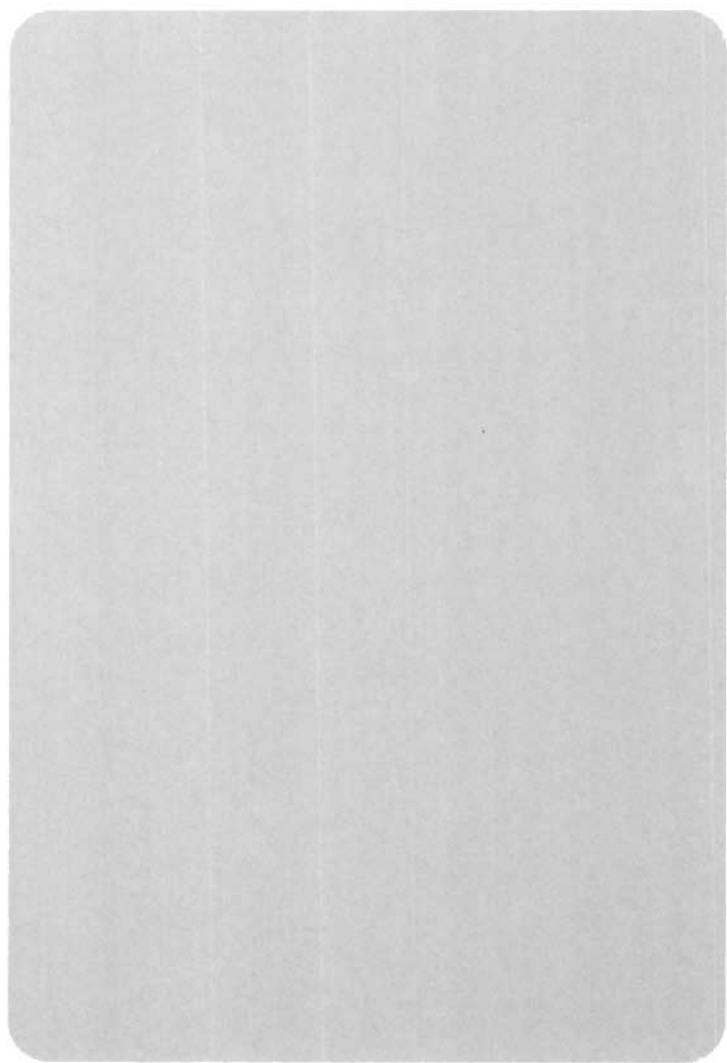
나가면서(결론)

1.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두 종류로 구별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악인,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기준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의인은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서, 즉 예수와 이름과 그의 재림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십니까? 예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십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2. 예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진정으로 영원토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믿으십니까?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4 과

기쁨

찬 송 / 486장
읽을 말씀 / 살전 5:16-18
외울 말씀 / 빌 4:4

기쁨의 명령

다음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살전 5:16 항상 기뻐하라

살전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 살전 5:16과 빌 4:4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
2.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조차 부담스러운 것은 아닌지요.

기쁨을 막는 것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롬 2: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롬 2: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고 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롬 2:9-10, 요16:24, 빌 4:6-7)

기쁨의 영원한 근거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 눅 2:8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눅 2: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눅 2: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찬송가 486장

- 1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서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 2절)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타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 3절) 옛 아굽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 4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읍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소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
4. 만일 세상적인 것, 예를 들면 물질이나 권력 그리고 명예나 지식에 기쁨의 원천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참된 원천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눅 2:8-10, 찬송 486장)

우리가 추구할 기쁨

5. 다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기쁨의 삶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벧전 4: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약 1: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 1: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약 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빌 1: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 1: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눅 15:3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눅 15:4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혼아흠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눅 15:5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눅 15: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혼아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8 어느 여자가 열 δρα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
9. 각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하시고 기도제목을 한두 가지 나누시고 난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총현의 만나 · 2001년 6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송길현(1-5일), 이수근(6-10일), 이유진(11-15일) 목사
안창덕(16-20일), 방준영(21-25일), 김병태(26-30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총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 비매품
